

함께 나누는 성찬

The Lord's Supper Divided Among Us

고린도전서 11:20-29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6월 2일 설교

²⁰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²¹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²²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²³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²⁷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²⁸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²⁹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가장 큰 두 계명

지난 주말 가졌던 가족수양회의 주제가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기초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었는데 뭐가 기초라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대 기초입니다. 수양회에 가신 분들도 잘 배웠겠지만 못 가신 분들도 이거 하나 잘 새기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서로 통한다는 점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하신 다음 뭐라 하셨습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모양이 비슷하다는 말씀도 되지만 무엇보다 비중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둘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통한다, 이 둘이 하나처럼 붙어 있어서 떼놓을 수 없다, 그런 뜻도 됩니다.

요한일서가 뭐라 가르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 했습니다 (요일 4:20). 우리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거나, 이웃은 열심히 사랑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지 못했다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무척이나 사랑하는 양 성경책 끼고 거룩한 자세를 갖추는 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위선입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배운 자비가 곧 주님 당신께 배운 자비라 하셨습니다 (마 25:40).

그러니 어떤 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지 말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이웃과 직접 이어져 있지 않은 계명도 있지만 십계명의 반 이상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미워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등등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율해 신약 인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사람을 추종하려고 합니까? 아니지요. 사람을 살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찬

옛날 고린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위선의 죄를 지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요즘 교회에 비해 성찬식을 자주 가졌습니다. 우리는 두 달에 한 번 합니다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도 배우고 성찬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찬양과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당시 예배에는 성찬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도 우리처럼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창한 성찬이었습니다. 주님이 성찬식을 세우신 게 최후의 만찬 때 아닙니까? 보통 식사 때도 아니고 유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때는 요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누는 식사 친교가 아예 예배순서에 들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자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하지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만 모인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모입니다. 교회 재정을 먹는 데 다 쓸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당시에 성찬용 음식은 각 가정에서 자원해 준비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여성교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런데 요즘도 있는 빈부격차가 당시에 있어서 어떤 가정은 모일 때마다 부담 없이 음식을 갖고 오는데 어떤 가정은 한 해에 한 번도 못 합니다. 못 갖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평소 잘 못 먹다가 교회에 와서 잘 먹습니다. 교회는 서로 나누는 곳 아닙니까? 부자 교인들이 갖고 오는 음식을 가난한 교인들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 찢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음식을 먹으며 주님 은혜도 함께 느끼고 주님께 감사도 드립니다. 성찬의 뜻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몇 달 몇 해를 거듭되다 보니 부자 교인들 마음에 불만이 좀 생겼습니다. 왜 우리만 늘 음식을 갖고 와야 됩니까? 그렇지만 말은 못 합니다. 명색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걸로 어떻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대신 그런 불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부자들끼리 성찬식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했다 하지 않고 해치웠다 하지요. 저희끼리 성찬식을 해치워 버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멀리 살면 일찍 오지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여유를 부리다가 늦습니다. 직장 갈 때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지각을 많이 들 하는데 지각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는데 느긋한 마음으로 와도 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에 오는 순서가 돈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부자 교인을 일찍 옵니다. 음식을 잔뜩 싸 갖고 오다보니 어깨에 힘도 잔뜩 들어가고 교회에도 얼른 오고 싶지요. 그래서 음식을 장만한 교인들은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음식을 펼쳐놓고 성찬식 준비, 그러니까 예배드릴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일찍 오는 게 맞지요.

가난한 교인들은 일찍 못 옵니다. 아무 것도 못 갖고 빈손으로 와야 됩니다. 못 갖고 오면 차리는 거라도 도와야지 하겠지만 음식 차리는 자리에 있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된 다음 슬그머니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예배를 드려야지요. 게다가 성찬식에 참여해 음식을 먹는 일도 중요합니다. 오긴 와야 되겠고 일찍 올 수는 없으니 늘 느지막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에 와 보니 이미 끝나 버렸습니다. 서머타임 시작하는 날도 아닌데 성찬식도 예배도 다 끝나 버렸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저희가 갖고 온 음식으로 이미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뒤에 오는 교인이 있는 줄 모릅니까? 알지요. 그런데도 기다릴 생각도 않고 먼저 온 사람끼리, 음식을 준비할 능력이 되는 교인들끼리 성찬식을 해치워버렸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교인들은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얼마나 무안합니까? 성찬식 음식을 기대하고 왔다가 못 먹어 아쉽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어치운 그 마음 때문에 더 아픕니다. 서둘러 해치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 갖고 오는 내가 같이 먹는 게 기분 나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음식도 못 갖고 오면서 그저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싫어 이제는 먼저 해치웠구나,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라는 뜻이구나....

성찬식의 뜻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편지를 써 꾸중합니다. 왜 누구는 먼저 먹고 취하고 누구는 먹지 못해 굶주려야 되느냐 하면서 할 말이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편지니까 좋은 말을 해 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렇게 못 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다시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을 가르쳐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주 예수께서 정하신 예식을 사도들에게 배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찬식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기 직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에 담긴 뜻은 주님의 죽음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렇게 죽으셔서 새 언약 곧 구원의 언약을 이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담긴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께서

죽으셔서 나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받은 우리,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가지면서 다른 교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무시했으니 미워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안한 마음을 교만의 발로 짓밟은 것입니다. 이거 위선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진 성찬식을 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으니 거짓입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죄도 안 지었을 것 아닙니까?

두 계명이 함께

성찬식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담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성찬에도 주 예수를 향한 우리 사랑과 그 사랑을 함께 받은 다른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데 성도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성찬은 가짜 성찬입니다. 먹고 마시니 배는 부르겠지요. 하지만 주님 은혜는 거기 없습니다. 그런 음식 아무리 푸짐하게 먹어도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은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오기 전에 성찬식을 해치운 일은 세 가지로 잘못입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모멸감을 주는 거지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소식을 들으니 학교에서 무료 급식 받는 아이들 이름을 공개해 아이들을 부끄럽게 한다 합니다. 우리 조국이지만 한 마디로 후진국이지요. 어른들이 정말 못됐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른 일도 아닌 주 예수의 희생의 은혜를 기리고 감사한다 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다니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 했습니다. 교인 몇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경멸하는 죄악입니다. 나와 내가 모였다고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그렇게 모인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경멸하는 일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죄악입니다.

주 예수의 몸

가진 것 좀 있다고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그런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잘못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악이면서 셋째로는 주 예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악입니다. 성찬을 짓밟는 죄라는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찬의 뜻과 반대로 가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은근히 무시해 버린 그 사람이 사실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가문도 내놓을 만한 것 하나도 없는 몇 사람 까짓것 간단히 무시할 수 있다 싶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힘깨나 쓰는 나하고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입니다. 같은 교인, 특히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짓밟는 일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주 예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지면서 주 예수의 몸인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나만 음식을 갖고 오는 게 싫으면 교회에 안 오면 됩니다. 교회에 안 온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시다.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바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그저 남보다 음식 조금 더 하는 게 아까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게 은혜 맞습니까? 그런 싸구려 은혜가 영생을 줄 수 있을까요? 성찬을 하지 말든지, 은혜고 뭐고 모른다 하든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옳지요.

성찬과 이웃사랑

성찬에는 주 예수의 사랑이 첫째로 담겼지만 그와 함께 이웃사랑도 담겨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웃사랑도 반드시 함께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큰 두 계명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성찬에 임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뭘 돌아보라는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했나, 주님의 희생을 얼마나 잘 느끼나, 그것도 물론 생각해야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보라 하는 건 이웃을 사랑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 사랑할 마음조차 없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에 참여하겠다 한다면 그건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옳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잘못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제단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다시 와 제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마 5:23-24). 성찬에 임하는 우리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말을 험하게 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사기를 쳐 손해를 입혔다거나, 무슨 일이든 그래서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입은 상처라면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용서를 받고 용서받아야 할 일이라면 가만 앉아서 주님 알아서 해 주세요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 주님께도 용서해 달라 할 수 없다고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부부사이에,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친구에게, 교인들에게,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습니까? 그게 마음을 괴롭힙니까? 그런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죄악을 깊이 회개하시고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도 용서해 주십니다. 혹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싶은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주님께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오늘 안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갈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내가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죽어 주셔서 내가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을 확인하고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동시에 맛보고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주 예수께서 죽어 주셔서 가능하게 된 놀라운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주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함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